## 20명 규모의 팀에서 Vault 사용하기

DEVSISTERS 김도윤, 김민규





Terraform Packer Vault













### < 10명 시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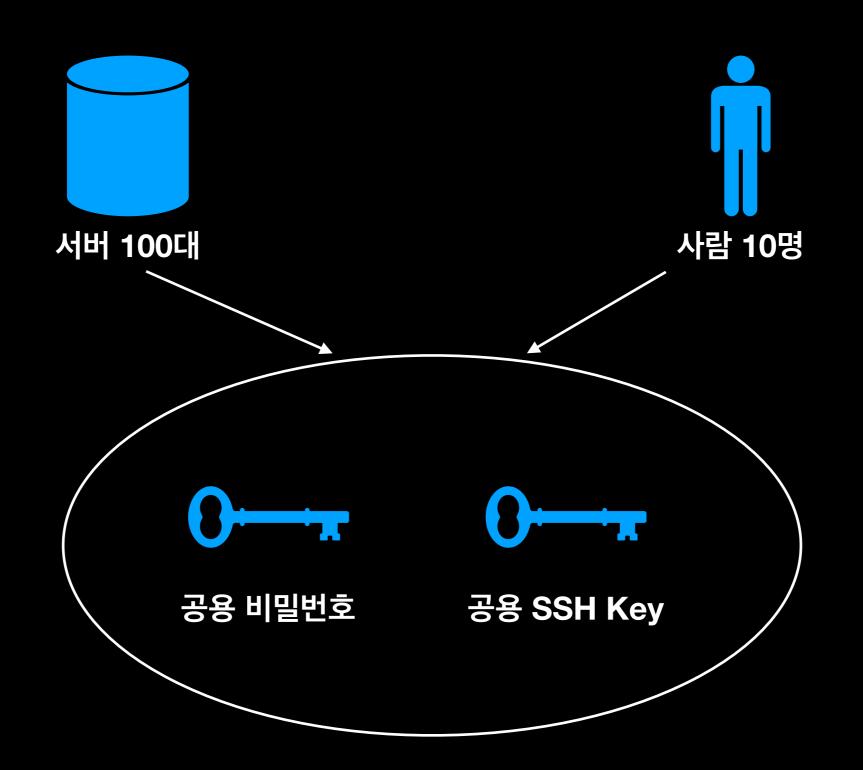
#### 입사자 선물세트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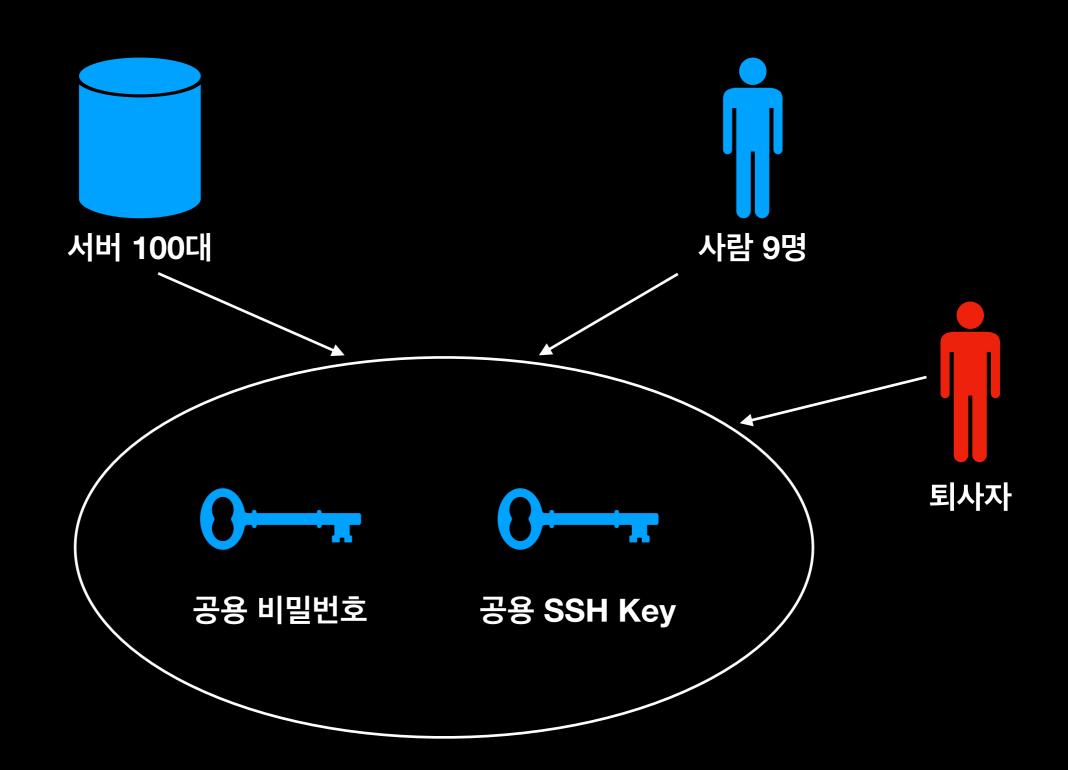
공용 SSH Key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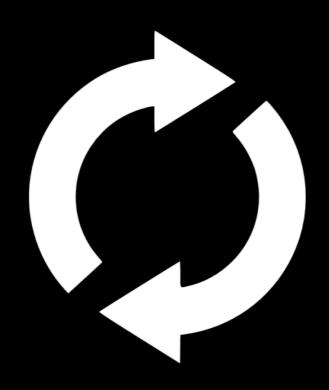
어느날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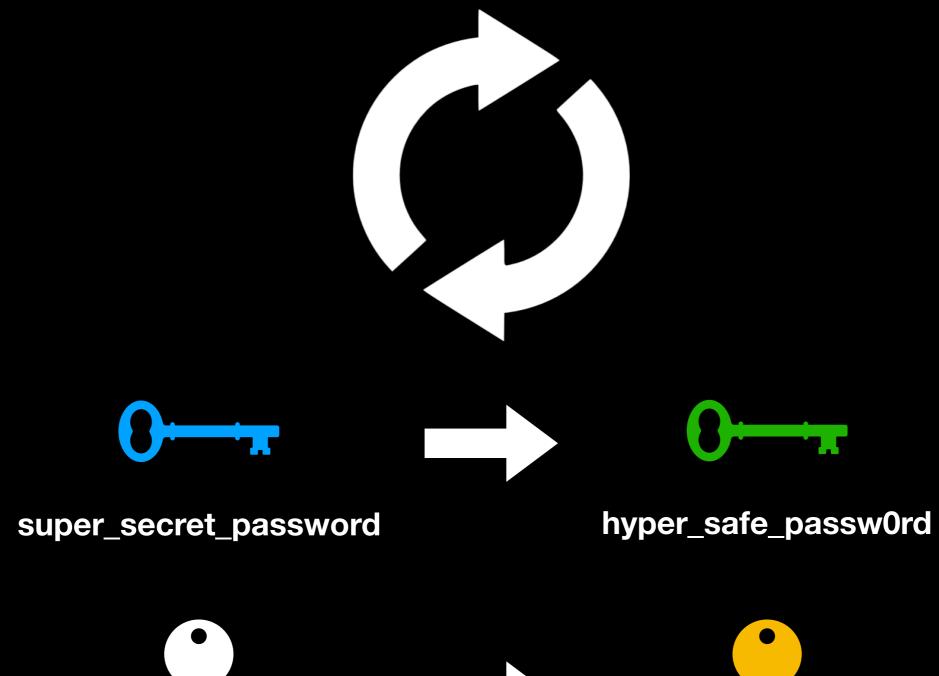
### 퇴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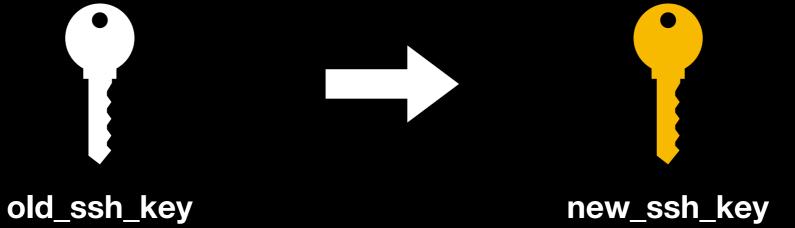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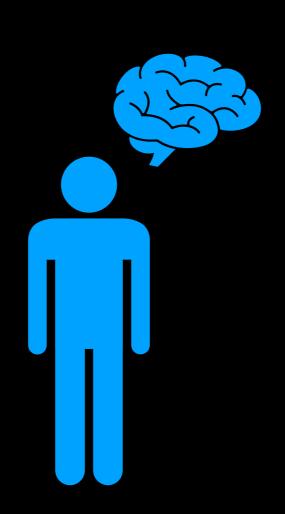
#### Key Rotat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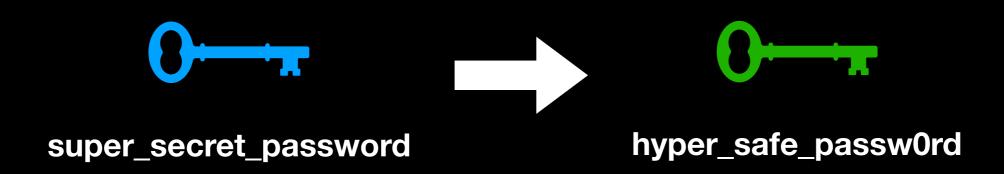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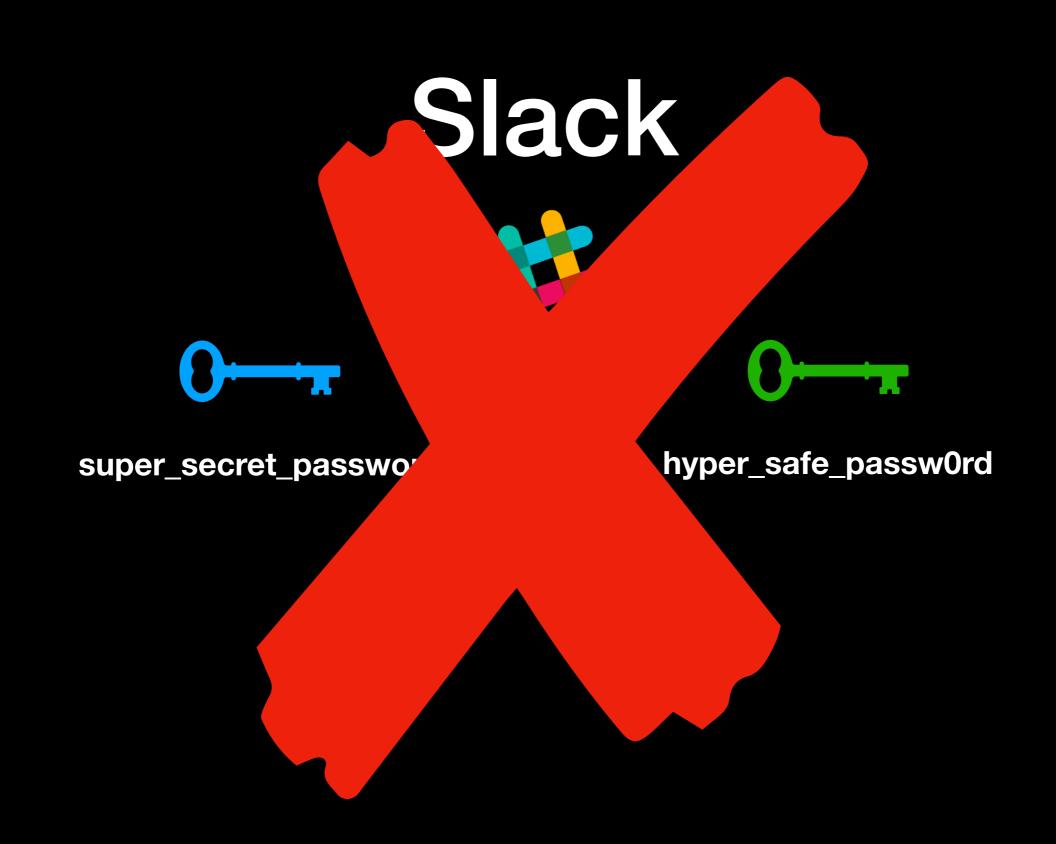


#### 머릿속 비밀번호 교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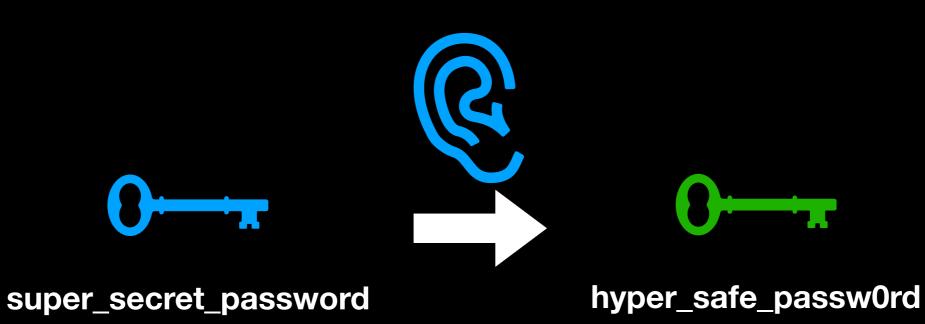


#### 어떻게 전달하죠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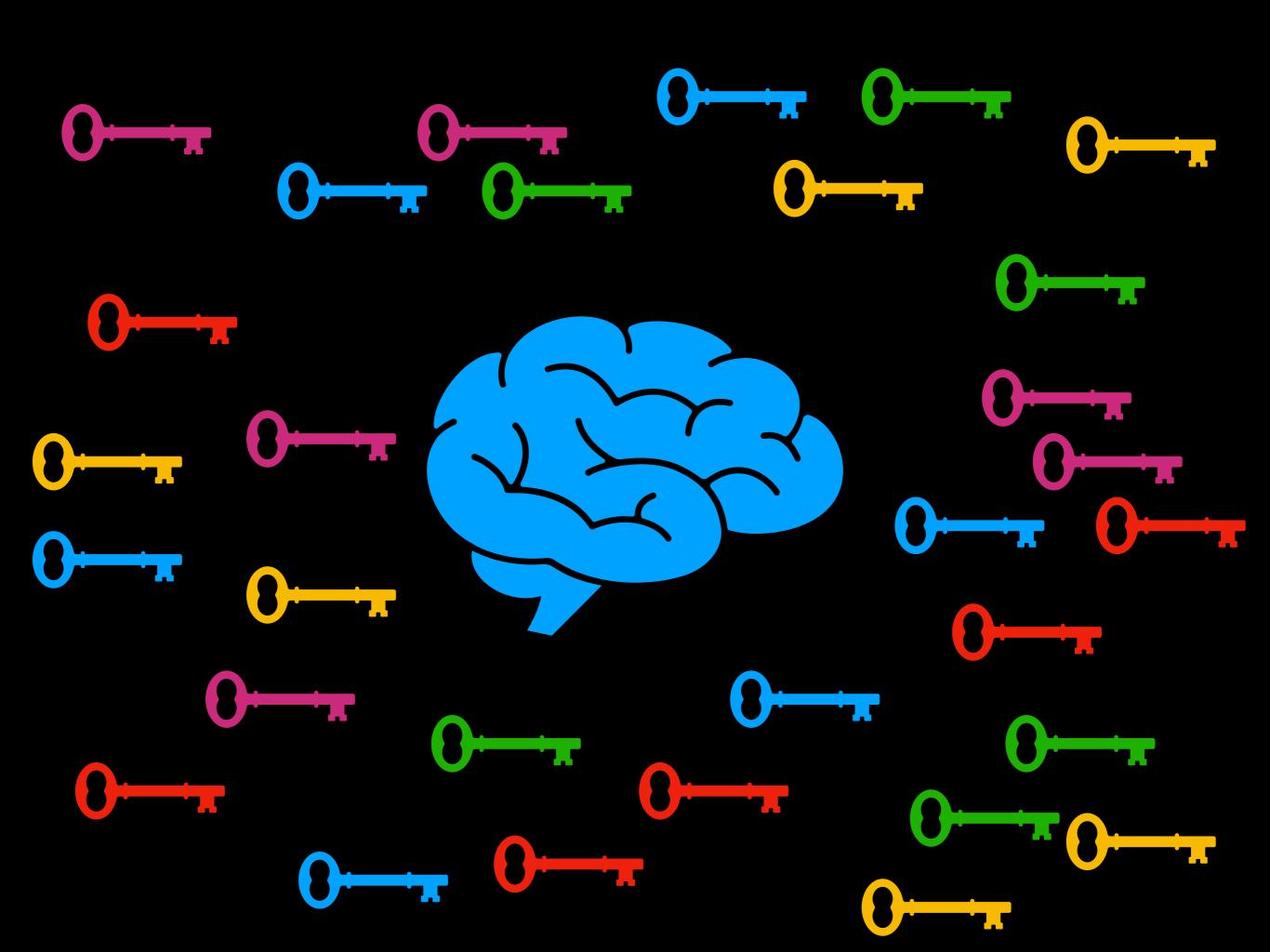


#### 귓속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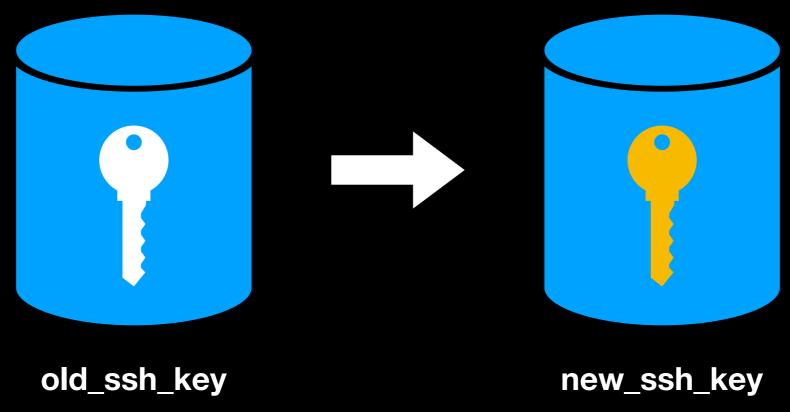
우리 비밀번호는 이제 B야 (소곤소곤) (실화)





### SSH Key 교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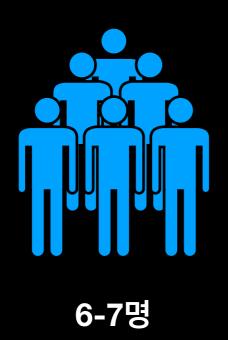
100번만 하면 됩니다.



#### Q: 스크립트 못만들어요?

AWS 계정이 달라요
OS가 달라요 (Ubuntu, Debian, Amazon Linux)
잘못 돌리면 엄청골치아파요 (SSH 안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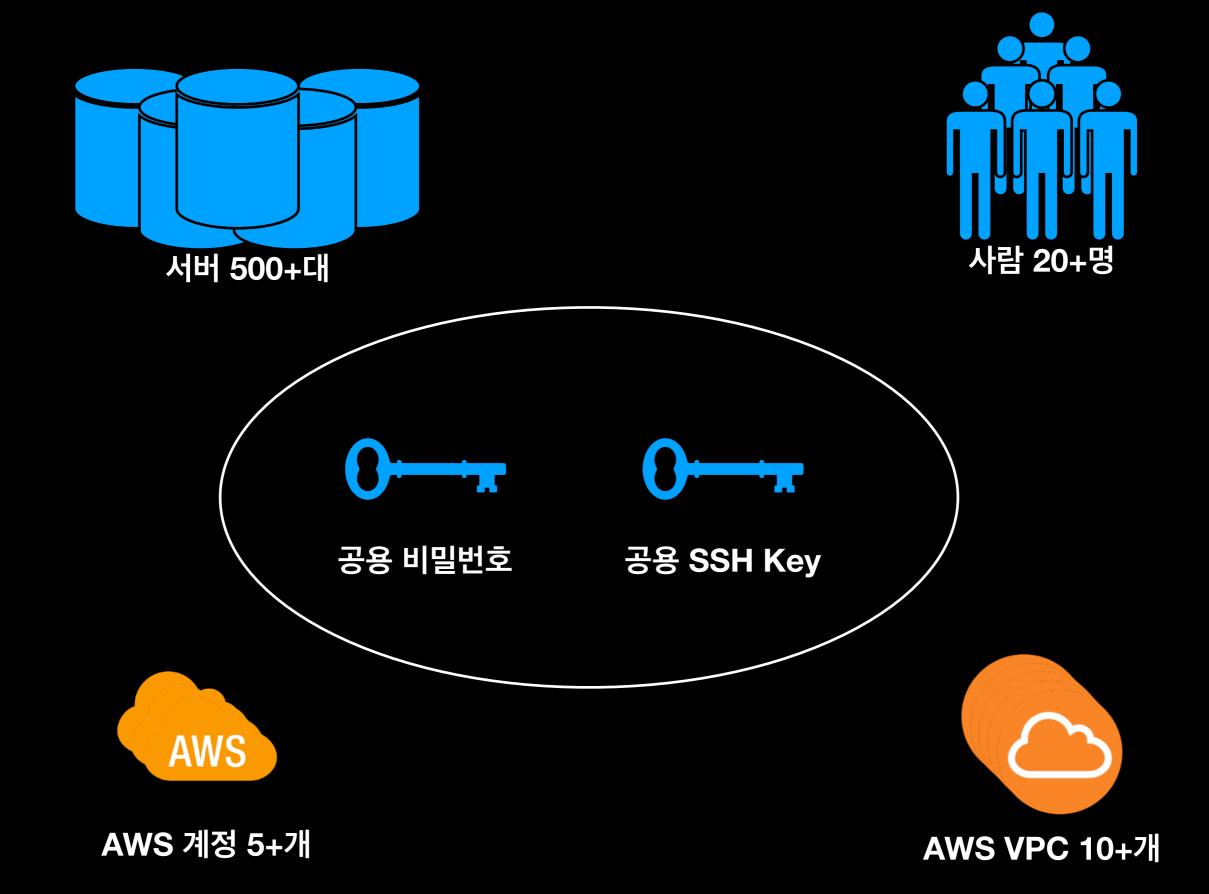
### 키교체 TF 결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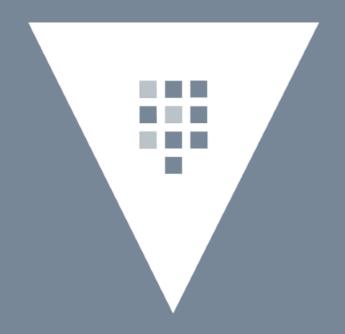


약 3-4주

## 20명+







#### HashiCor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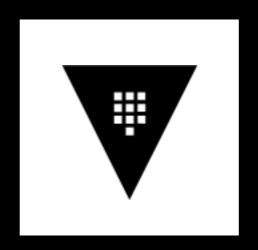
# Vault

#### Vault를 통한 SSH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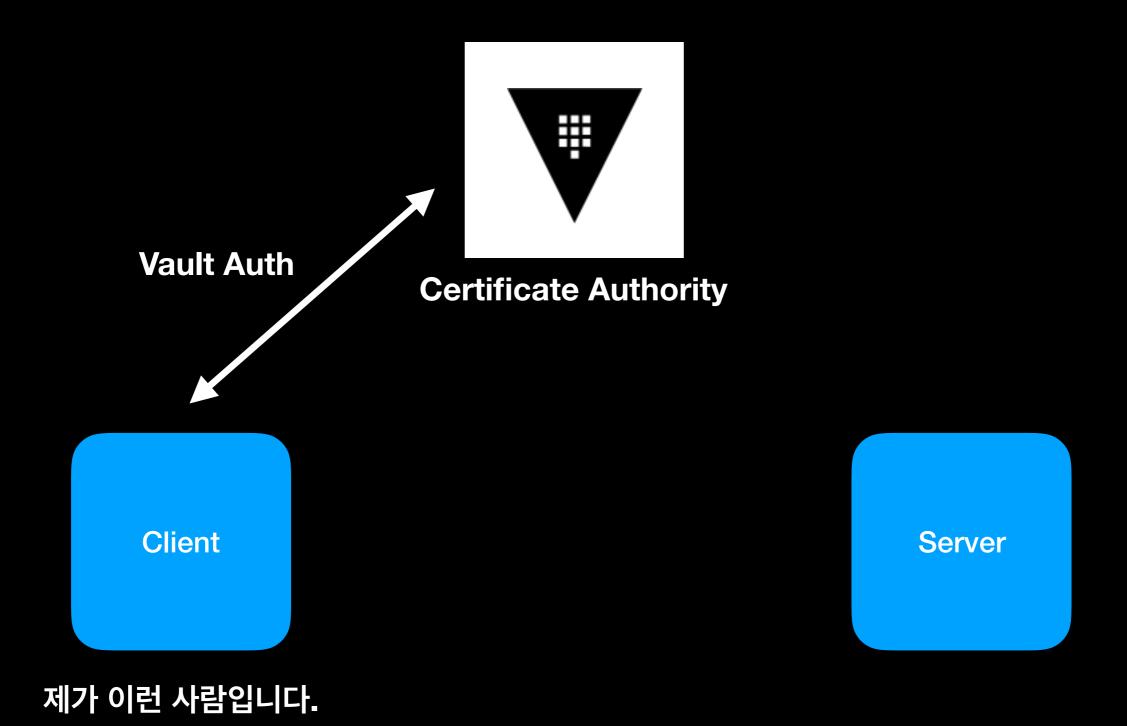
#### **SSH Certificate Authentication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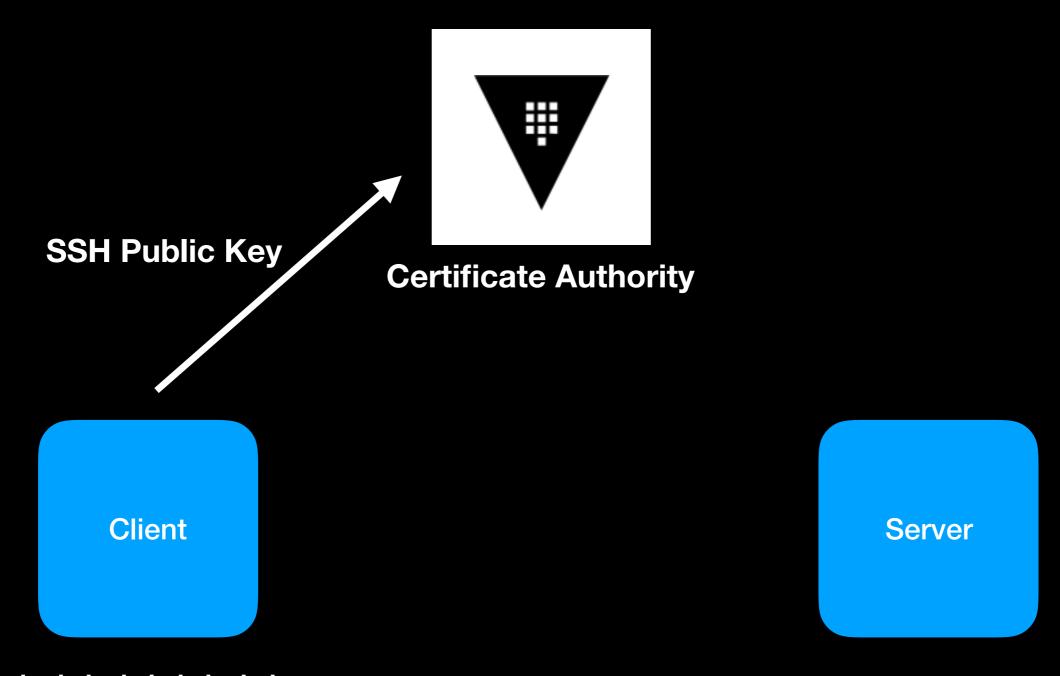


(믿을 수 있는) Secret Stor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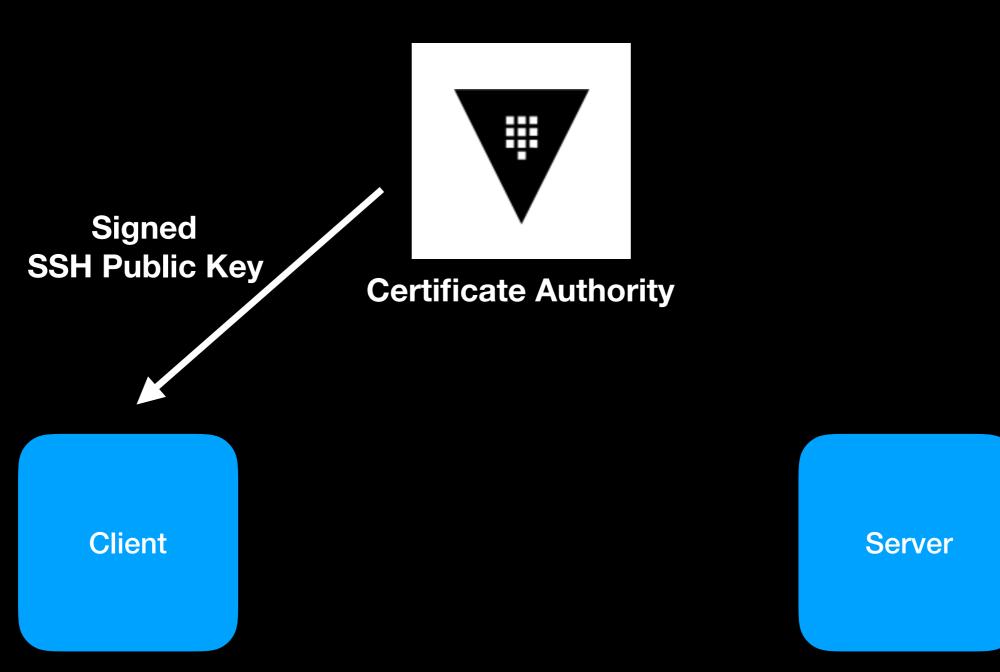
(훌륭한) Certificate Authority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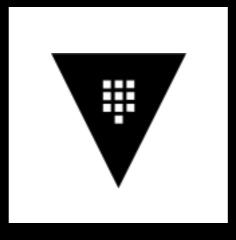
제가 이런 사람인거 아시죠? 접근을 허가해 주세요!

접근을 허가한다. 5분 안에 접속하시오.









**Certificate Authority** 

Client

cf) 보통은 public key를 전달받아 authorized\_keys와 대조한다.

ca.pub

Server

서명된 것이 맞네요. 계속 진행해도 좋습니다.







퇴사자

 $T_T$ 

Server

아이고 서명은 됐는데 시간이 지나셨네요.

• 인증서를 만든다.

```
$ vault write ssh-client-signer/config/ca generate_signing_key=true
Key Value
--- -----
public_key ssh-rsa AAAAB3NzaC1yc2EA...
```

• 역할을 등록한다.

```
$ vault write ssh-client-signer/roles/my-role -<<"EOH"
{
   "allow_user_certificates": true,
   "allowed_users": "*",
   "default_extensions": [
        {
            "permit-pty": ""
        }
   ],
   "key_type": "ca",
   "default_user": "ubuntu",
   "ttl": "30m0s"
}
EOH</pre>
```

• 서버에 인증서 공개키를 등록한다.

```
# /etc/ssh/sshd_config
# ...
TrustedUserCAKeys /etc/ssh/trusted-user-ca-keys.pem
```

• 공용 AMI로 굽는다.



끝!

# 더 간단한 클라이언트 접속

\$ vault ssh -mode=ca -role=my-role user@1.2.3.4

# 간단하지만 강력한 관리

- Vault 자체의 훌륭한 권한 관리 시스템을 활용
- 개인이나 그룹에 따라 접근 가능한 인스턴스 설정 가능
- 새 팀원이 오면 필요한 그룹에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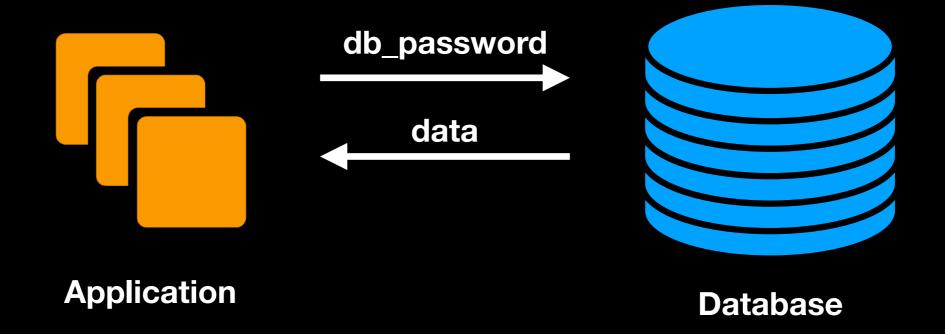
### FAQ

- Vault에 장애가 나면?
  - 비상용 키
  - 서버들에 기본으로 public key를 등록
  - 암호화된 private key는 안전한 금고 등지에 보관한다.

## 자세한 내용은

- HashiCorp 제품의 장점: 좋은 문서화
- https://www.vaultproject.io/docs/secrets/ssh/signed-sshcertificates.html
- 옛날엔 이런 거 없었는데..

# Application에 Secret 넘기기



# 어떻게 알려주죠?

# Password in ade

DB.connect(user: 'roo

per\_secure\_password')



imfishhead/missionz - .env

Showing the top match Last ind

- 1 AWS\_BUCKET=missionz
- 2 AWS\_ACCESS\_KEY=AK
- 3 AWS\_SECRET\_KEY

1

### 구체적으로는요

- Code의 접근 권한과 Secret의 접근 권한이 다른 경우가 많음.
- Rotate하면 코드 싹다 갈아엎어야
- 일단 Github도 회사 밖이다! (엔터프라이즈는 비싸요)

# Workarour

AMI에 패스워드, 서버에만 올려나 .때는 직접 입력 커밋하지 않음

# 작업자가 모르는게 최고

### Vault KV

```
db_pw = Vault.logical.read("/secret/db_password")
DB.connect(user: 'root', password: db_pw)
```

```
DB_USER=$(vault read -format=json "secret/app/db_credential" | jq -r '.data.username')
DB_PW=$(vault read -format=json "secret/app/db_credential" | jq -r '.data.password')
```

### Q. Vault는 뭘 믿고 얘한테 키를 줘요?



#### AWS에서 찍어주는 옥새

#### 인스턴스 자격 증명 문서

인스턴스 자격 증명 문서는 인스턴스를 설명하는 JSON 파일입니다. 인스턴스 자격 증명 문서에는 문서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도, 오리진 및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명 및 PKCS7 서명이 함께 제공됩니다. 예를 들어, 유료 업데이트가 포함된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을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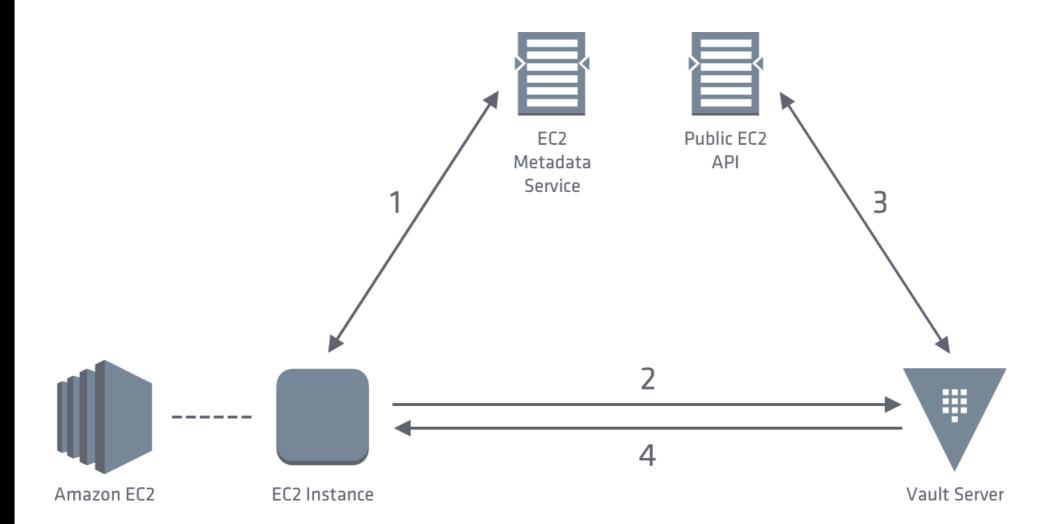
인스턴스 자격 증명 문서는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생성되고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를 통해 인스턴스에 공개됩니다. 이 문서는 인스턴스의 속성(예: 구독 소프트웨어, 인스턴스 크기, 인스턴스 유형, 운영 체제, AMI 등)이 유효한지 검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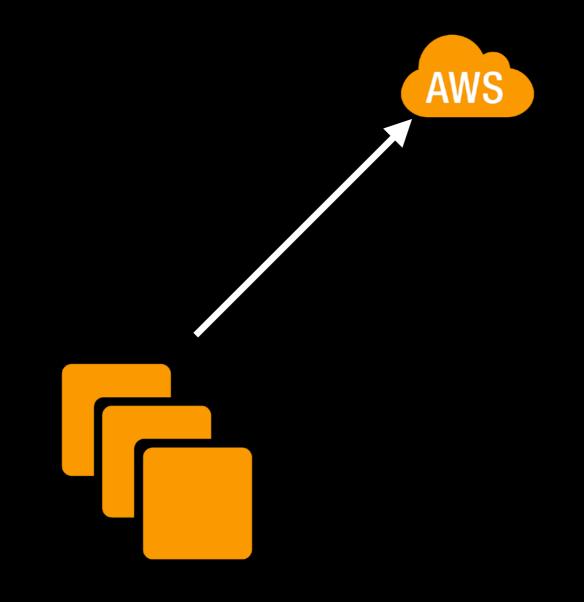
#### 중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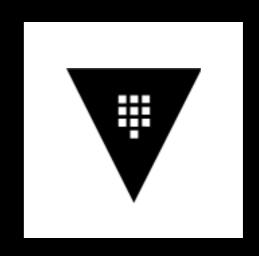
인스턴스 자격 증명 문서와 서명은 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인스턴스 자격 증명 문서와 서명을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https://docs.aws.amazon.com/ko\_kr/AWSEC2/latest/UserGuide/instance-identity-documents.htm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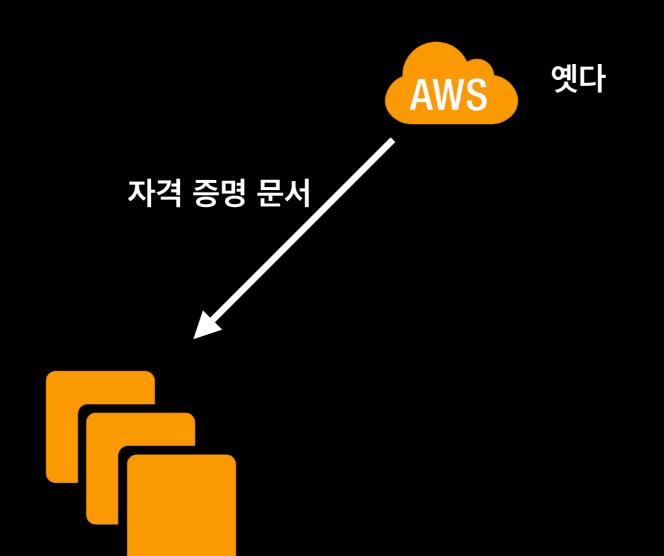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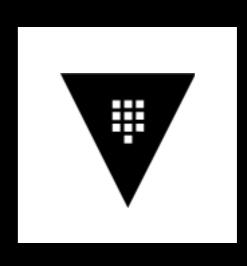






신분증명서 떼어주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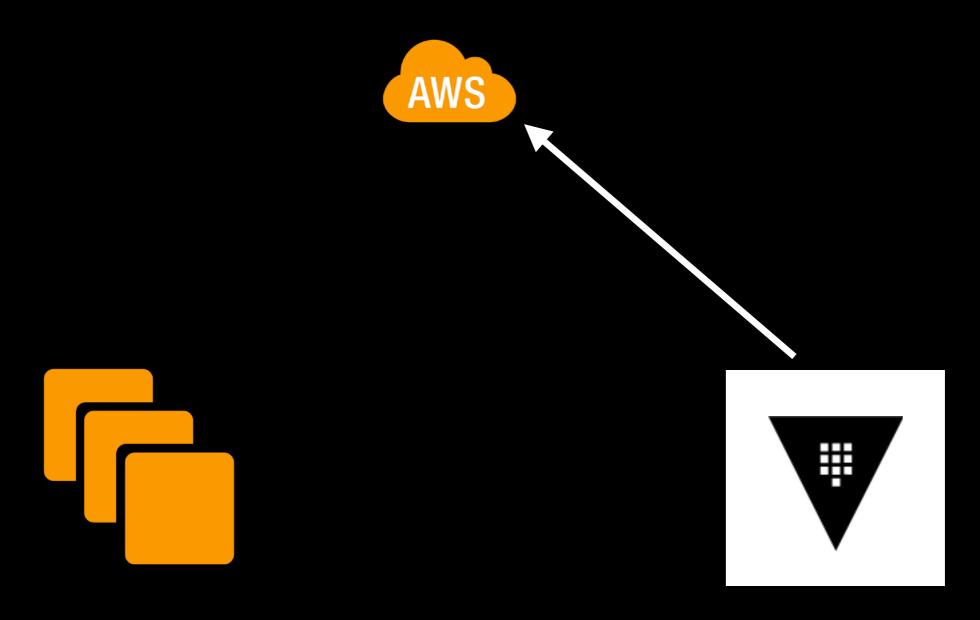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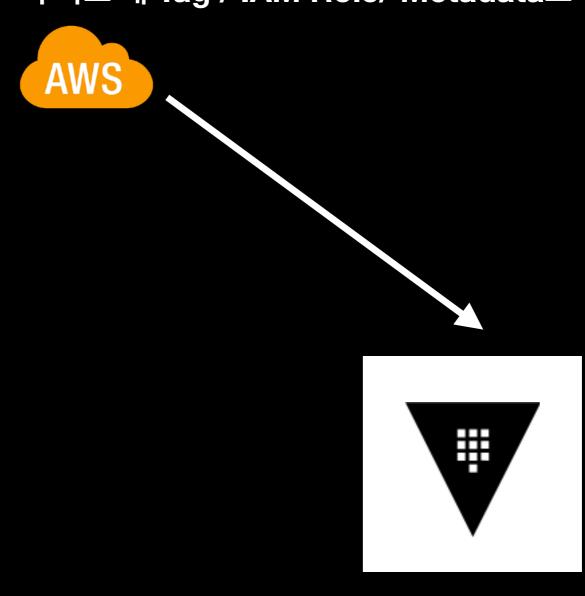


Vault 열람 신청합니다



이거 당신이 서명한거 맞아요?

ㅇㅇ 제 서명 맞아요 추가로 얘 Tag / IAM Role/ Metadata도 알려드릴게요.









당신 메타데이터가 이러저러하니 열람할 수 있는 토큰을 드리죠





당신 메타데이터가 이러저러하니 열람할 수 있는 토큰을 드리죠

### vault\_auth.sh

```
PKCS7="$(curl http://169.254.169.254/latest/dynamic/instance-identity/pkcs7 | tr -d '\\n')"
vault write -address="$VAULT_ADDR" -field=token auth/aws-ec2/login role="$VAULT_ROLE" pkcs7="$PKCS7" nonce="$(cat /proc/sys/kernel/random/uuid)"
```

- 역시 Packer로 모든 인스턴스에 구워넣음
- Vault Agent (3일 전에 나옴)

### FAQ

- PKCS를 가로채이면 어쩌죠?
  - Trust on first use
  - 두번째 login부터는 첫번째에 제공한 nonce값 필요

### FAQ

- 이제는 패스워드를 100% 완벽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나요?
  - 100%는 아니다
  - PASSWORD를 읽어서 docker ENV로 넘기는데, 썩 안전한 장소는 아님.
  - 제대로 하려면 각 어플리케이션이 Vault API를 호출해야 함

# Vault 구축 과정

# 아래 상황은 픽션입니다

- 아이거 도입했는데 장애도 너무 많이 나고 일할때 불편해요
- 우리 팀은 저거 안 쓸래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
- 이거 너무 셋업 어려워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
- 이런 복잡한거 말고 하던대로 하면 안돼요?

# 구축시 신경쓸 점

- 안정성
  - Vault의 갑작스런 장애를 인간도 기계도 원하지 않는다.
  - 업데이트가 잦다. 무중단 업데이트 가능할 필요성

# 구축시 신경쓸 점

- 보안
  - 절대 털리면 안될 곳이므로 최대한 안전하게
  - Vault 권장사항을 정독하고 충실히 따름

# 구축시 신경쓸 점

- 사용성
  -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최대한 적게 바꾸는 방향으로
  -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도록

# 안정성

# 데이터 저장

### 일단 지원되는 건 엄청 많음

- https://www.vaultproject.io/docs/configuration/storage/ index.html
  - MySQL
  - DynamoDB
  - CockroachDB
  - Filesystem

•



#### Consul

- KV Store, Service Discovery, etc..
- 이미 사내 사용 및 구축 사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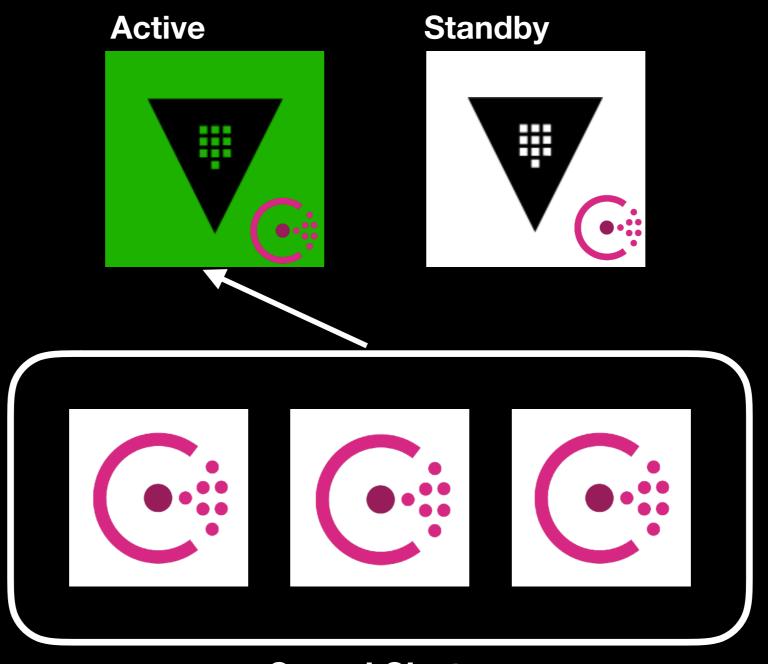
### + 뭔가 믿음직함 (중요)

- High Availability the Consul storage backend supports high availability.
- HashiCorp Supported the Consul storage backend is officially supported by HashiCorp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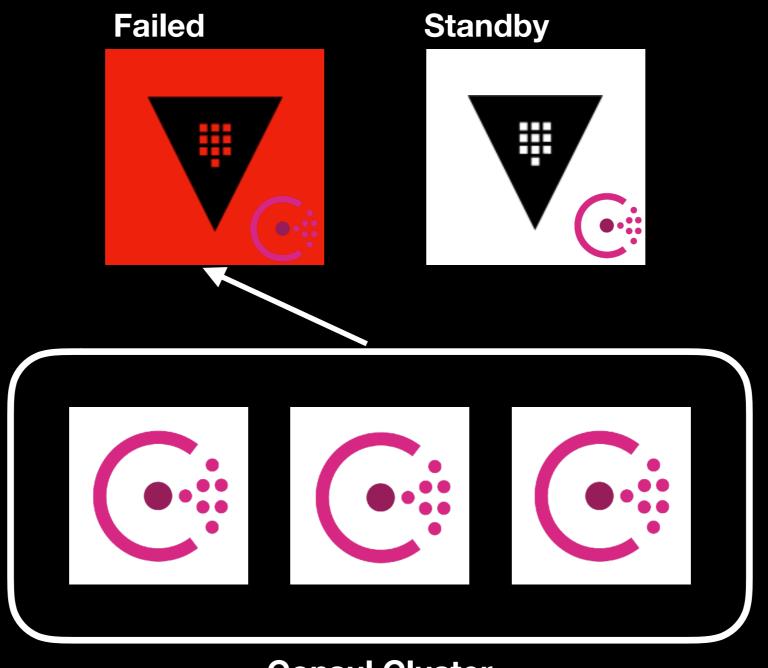
# 고가용성

# 서버가두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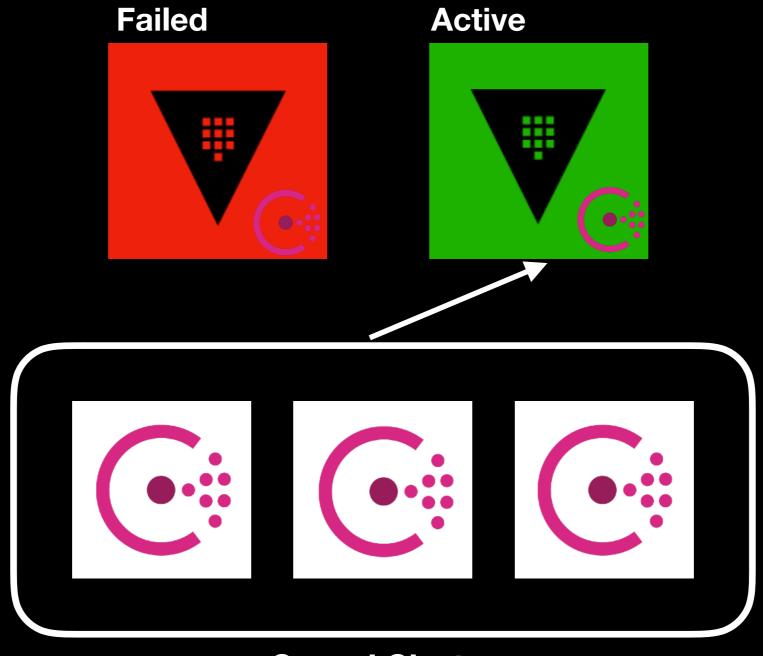
### Active-Standby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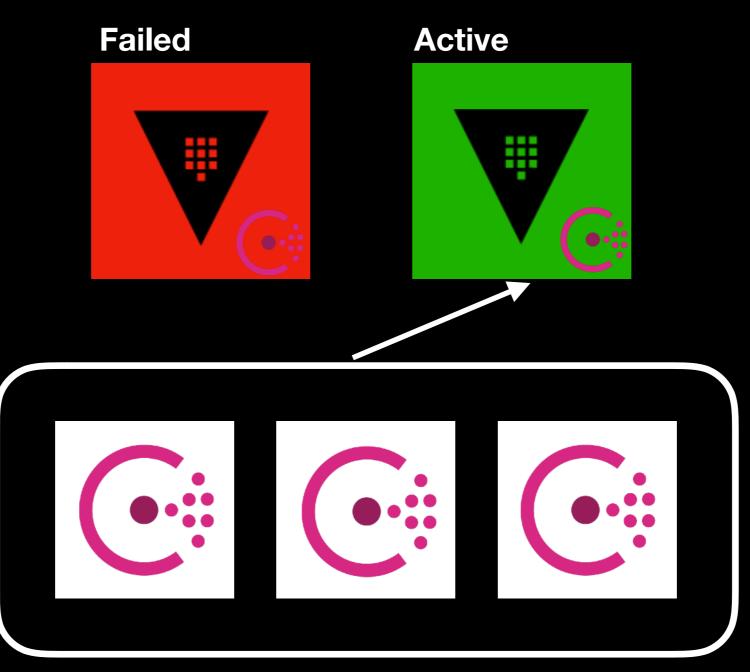
### Active-Standby



### Active-Standby







#### Consul

- 이미 훌륭한 Service Discovery 기능 제공
  - 유저가 DNS 설정을 하던가
  - 외부 서비스를 활용 (fabio, etc..)

#### ELB

- 사실 세팅은 Health Check 정도면 됨
- 관리 코스트가 몹시 적음
- 유저에게도 뭔가 시키지 않는 선택지
- 아쉽지만 사용성이 좋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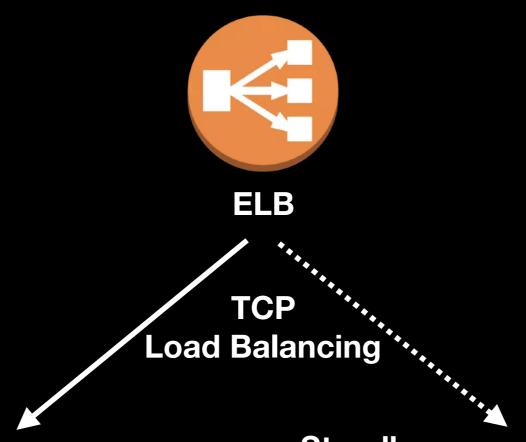
### 까다로울 것 같다면

- 정말 친절한 레퍼런스 가이드 문서
- https://www.vaultproject.io/guides/operations/vault-haconsul.html
- 이것도 옛날엔 없었는데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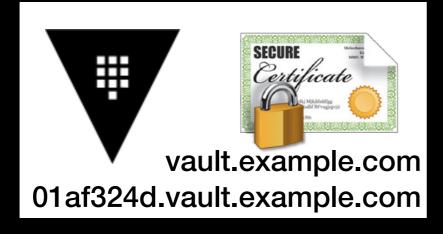
# 보안

### 할거면 제대로 해야지 뭐

### End-to-End TLS



#### **Active**



#### **Standby**



#### 인증서

- 각각의 인스턴스에서 알아서 발급, 알아서 갱신
- Let's Encrypt!
- https://github.com/Neilpang/acme.sh
- Route53을 활용한 DNS-01 인증

### Audit Logging

- 현재는 logrotate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s3에 적재
- syslog도 사용 가능
- 로깅 인프라가 있다면 (ELK 등) 충분히 활용 가능

# 사용성

# 문서화

### 정책, 정책, 더 많은 정책

- 셋업은 한때일 뿐 권한 설정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.
- 이미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면 절약 가능
  - ex) GitHub 그룹, LDAP

#### Secret 관리

-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경로 설정
  - 예) /secret/app/appname/rds
- 정책에 관한 꼼꼼한 문서화
- 가급적 도입 전부터!

### 적응에 도움주기

-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 물건이다.
- 기본 개념부터 하나하나 문서화
- 회사를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강의 세션 진행
- 각종 도움되는 스크립트 작성 및 공유

# ᅙᆚ

# 정말 편하다!!

# 그런거 말고

# 예상을 벗어났던 것

### 권장은 권장일 뿐

- End-to-End TLS같은걸 하게 되면 셋업 난이도가 **수직상승**
- 내줄 건 과감하게 내주자. 다음에 해도 된다.

#### Consul

- 은근 관리가 까다롭다
- 다수의 업데이트 실패 사례 있음
- 사용한다면 적극적인 백업을 권장

### 히어로

- 없던 정책을 새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
- 결국 의지와 추진력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.

#### Case: Unseal

- Vault 인스턴스는 처음 뜨면 봉인된 상태
- 지정된 n명 중 m명이 모이면 해제할 수 있다.
- 7인의 Unsealers를 지정해서 관리 책임을 분산..!!

# 이상



IN 30, real D)3D AND IMAX 3D

### 현실



### 혼자서는 팀을 구할 수 없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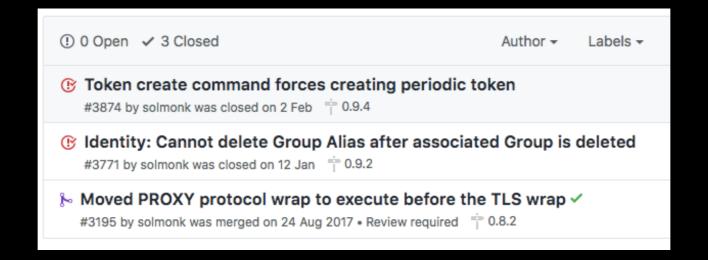
- 슈퍼맨 하나로는 역부족
- 애매하게 분산된 책임
- Unseal 작업은 둘 이상이 필요
- 결국 운영하는 두 명이 Unseal도 하는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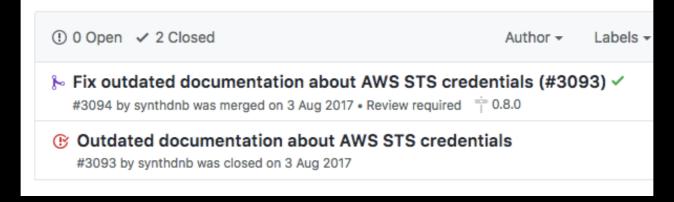
#### 인내심

- Vault는 굉장히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프로덕트
- 목빠지게 기다리던 업데이트도 문제가 생겨 종종 롤백
- 새로 개발되는 기능은 좀 기다렸다 써보자.

#### 또는 행동력

• 아니면 PR과 이슈를 작성할 각오를 해야..





### 예상보다더좋았던것

# Audit Logging

- Vault 최고의 장점이자 핵심 가치
- 조사하면 정말 뭐든지 다 나온다

### Audit Logging

- 이 비밀번호 누가 이렇게 바꿔놨어요? -> 검거
-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세팅이 이렇네요 -> 검거



### 일단 넣어

- 컨피그 파일이 있는데.. -> KV에 일단 넣어
- 공용 OTP는.. -> TOTP Backend
- 그냥 간단히 안전하게 뭘 전달하고 싶은데.. -> Transit Backend

### 일단 넣어

• 심지어 이게 극히 일부만 쓰고 있는 것

### 엄청난 발전 속도

- 각종 사용자 가이드 문서
- Web UI
- PROXYv1 / X-Forwarded-For support
- Secret Versioning
- CLI 자동완성
- 기타등등...

#### 엄청난 발전 속도

- 1년도 안 되어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룬 제품
- 체인지로그를 기다리는 맛이 있다.
- 이젠 충분히 쓸만하다!

### 줄줄이 패키지

- 자사 제품과의 뛰어난 연계
- Consul
- Consul Template
- Terraform
- Packer
- Nomad

####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

- Terraform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팀
- 보안 스탠다드가 높거나 높이고 싶은 팀
- 급격히 성장중이고 빠르게 인원이 증가하는 팀

# DEVSISIERS

devsisters.com/jobs

